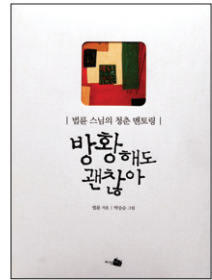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대중의 멘토로 활동 중이다.

# “스님도 그건 하기 싫은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즉문즉설 법륜 스님이 전하는 행복메시지



**방향해도 괜찮아**  
법륜 지음  
박승순 그림  
지식채널  
1만3000원

“결과를 위해 지금 힘겨움과 싸우는 것도, 나중에 한 좋은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지금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전부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가 곧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겁니다. 선택 안 좋은 결과가 예측되더라도 미리 알아버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헤아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당신과 만나서 그동안 즐거웠다. 덕분에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것이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지속해야 성공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고 좋으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해’라고 장사꾼처럼

계산하고 대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하시 때문에 실패가 따르지, 사랑 그 자체에는 실패가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성공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축복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모한테 뭐가 기대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그것까지 다 얻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가 반대한다면,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가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부모님도 설득해주면 좋겠다고요? 스님도 그건 하기 싫은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 내 결혼이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그냥 내가 결혼하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많다. 청춘에게 고민이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어느 철학자의 정의 때문은 아니다. 88만원 세대, 시급 4500원으로 규정되는 이 세대의 청춘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절규하고 있다.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의 문 앞에서, 도무지 누가 볼지 알 수 없는 로또 당첨보다 더 낮아보이는 시험 앞에서, 연애도 결혼도 내게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라는 서글픈 사랑 앞에서 청춘들은 실망과 좌절로 고개를 숙인다.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간다. 불안·초조함을 누를 길 없는 나날의 연속

이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 혼자만 억울할 뿐이다. 도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속 시원히 말해주 사람은 없을까?

실천하는 종교인이자 즉문즉설(問問則說)을 통해 남녀노소를 초월해 인생의 멘토로 활동 중인 법륜 스님이 20~30대 청춘들을 위해 행복메시지(방향해도 괜찮아)를 내놓았다.

스님을 만난 청춘들은 하나같이 “스님, 너무 괴로워요”라고 말한다. 시험·취업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직장·

## 시험·취업·사랑·결혼 등 청춘 고민 법륜 스님이 던지는 행복 메시지

### “방향해도 · 실패해도 · 틀려도 괜찮아 · 툭 털고 일어서 다시하면 돼”

사회라는 조직생활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민을 호소한다.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 청춘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스님은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다만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서를 단다. 법륜 스님은 고뇌하는 청춘을 위해 달콤한 위안이나 의례적인 격려를 건네지 않는다. 진정한 조언자보다는 새벽바람처럼 살을 에는 듯한 차디 찬

의견을 직설적으로 던져 놓는다. 앞뒤 재는 것도 없다. ‘쿨’하게 말한다.

4년째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수험생의 고민을 듣자마자 스님이 답을 내놓았다.

“올해까지만 하고 딱 그만두세요.” 스님의 이 말은 혹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따라붙는 스님의 찬찬한 설명을 듣다보면 어느새 고개는 절로 끄덕여 지고 가슴은 뜨겁게 뭉클해진다.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나폴레옹. 작은 키에 지중해의 작은 섬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고민 앞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춘에게 법륜 스님이 주는 말은 한가지이다.

“방향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물러서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하고 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실패도 없고 방향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틀리고 물러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연습이다.

지금의 이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내일을 만들어 준다. 실패하고 방황할 때 연습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무문관 참구	장휘욱, 김사임	민족사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뽕앤파커스
6	방향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7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헤민	클리어마인드
10	스님은 장애쟁이	해철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38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답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이수덕 역주  
운주사  
9000원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불설대승금강경론>은 <금강경>과 관련된 논서이다.

저자 이수덕은 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능엄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불설대승금강경론>을 만났다.

책은 <금강경>과 달리 수보리가 아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과 문답하고 있다. 책은 문수보살이 말세에 입문하는 중생들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경명을 <금강경>이라 한 이유에 대해 ‘금강’은

자성(自性), ‘경’은 자심(自心)에 비유한 것이며 자기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면 자기 몸 안에 경이 있는 것이라는 답이 있다.

또, 4구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를 닦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눈 것이 4구개라는 답을 적고 있다. 즉 몸을 비움, 마음을 비움, 자성을 비움, 법을 비움 이 그것으로 이 순서에 따라 수행하고 증득하면 성문(4과)과 부처의 길로 들어간다고 함으로써 4구개가 단순한 불법의 이치를 설명한 계승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육바라미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는지, 어떤 복을 닦아야 극락에 태어나는지 등 38개의 주제에 대해 간결한 해답을 적고 있다.

저자는 “책은 대승의 금강반야를 밝히는 경전 이면서도 초기불교의 법문을 아우르면서 실제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 합허·감산이 본 원각경



**원각경이해**  
함허득통 해·감산덕청 지해  
황정원 역주  
운주사  
1만8000원

<원각경>은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경전이다. <화엄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중국·한국에서는 <능엄경>과 함께 <원각경>을 마음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과서로 높이 평가해왔다. 한국 전통강원의 교과과정인 사교(四教)에도 <능엄경>과 <원각경>이 들어 있다.

책은 <원각경> 해설서로 정평이 난 함허득통 선사(원각경해)와 감산덕청 선사가 해설한 <원각경적해>를 경문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함허득통은 지공 내용 무학의 법계를 이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 고승이다. 스님은 유학자들의 배틀론에 맞서 호법론을 펼친 선승이었다.

감산덕청은 명말 4대 고승 가운데 1인으로 추앙되는 스님으로 선교융합과 선정정수, 삼교일치를 주장한 고승이다.

합허 선사의 <원각경해>는 한국에서 <원각경>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주석서로 손꼽힌다.

감산선사의 <원각경적해>는 그 서문에서 천태지자 대사가 경의 요지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 오중현의(五重玄義) 방식으로 경의 대의를 총괄한 것이다. 또 경문의 해설에 있어서도 천태 교학과 선종의 직절함을 잘 융합해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감산의 서문을 앞에 실었다. 전체 12장으로 이뤄진 경문을 번역한 다음, 경문에 따른 합허와 감산의 주석을 병행해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 경문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두 선사의 견해를 비교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다라니수자재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경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俄空)'을 체험한 덕안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율과소통: 02-2632-8739, buddhapla5@daum.net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본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본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넷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약藥 초草 차茶 (藥을茶처럼)

소나무 넝쿨, 자귀나무 藥茶의 효능

양지가 잘 들고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며 약성이 다양하고 효과가 빠르다. 관절염, 근육통, 류머티스 관절염, 풍습병, 어혈, 편두통, 당뇨 혈당저하 증후(피를 맑게 함), 고혈압, 신경통, 각종 암이나 종양치료에도 쓰일만큼 효능이 뛰어나다. 남성의 양기 부족, 전립선염, 여성의 냉, 대하증, 기침, 가래에도 효능이 좋다.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던 차이기도 하며 시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효능을 발휘한다.

복용법  
• 물처럼 자주 마신다. (커피 음료수 대신 꾸준히 마신다)  
• 가려야 할 음식이 없다.  
• 차게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상담환영

주문 및 문의 : 055)271-9141  
직통전화 : 010-9468-9141 / 010-3456-8851  
계좌 : 농협 352-0165-8680-53 (예금주 신선연)